

미얀마 궁금한 이야기

💧 미얀마에서 새해를 즐기는 방법, 틴잔(Thingyan)

우리나라에서는 새해하면 1월 1일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4월 중순을 신년으로 여깁니다. 이 시기의 새해맞이 축제를 '틴잔'이라고 하는데, 물을 뿌리며 더위를 잊고,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ceremony)의 일종입니다.

깨끗함을 상징하는 물로 나쁜 기운을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기 때문에 물 축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4일동안 진행되는 '틴잔' 기간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옷이 젖은 채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기분 좋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국적도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 물을 뿌리고 덕담을 나누다보면 어느새 자연스레 친구가 됩니다.

미얀마의 '틴잔'과 같이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재미있는 문화와 행사가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결연 아동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과정을 거쳐 2017년 1, 5, 9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날에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MYANMARBUSINESSNEWS

미얀마 사업장 소식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후원자 해외사업장 방문 Let's go Together!

2016년 8월, 밀알복지재단의 9명의 회원님들이 미얀마 사업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동들은 회원님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만들기 활동, 체육 활동, 전통놀이 등에 참여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처음 해보는 낯선 활동임에도 열심히 따라주는 아동들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7박 9일의 동안 미얀마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엔 부족했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회원님과 아동 모두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전통놀이



미얀마 아동들이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놀이를 알려주고자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소개했습니다. 아동들은 기대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놀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들만의 개성이 담긴 딱지와 팽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동들은 처음해보는 놀이가 서툴기도 했지만 쉽고 재미있는 전통놀이 활동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육활동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간단한 체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체육활동은 한국 동요와 율동, 풍선 릴레이, 림보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귀요미 송'을 미얀마 현지어로 번역하여 가르쳐주었는데 아동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실력을 친구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하는 아동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원자님과 아동들은 함께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마음껏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 회원님과 아동들의 즐거웠던 시간을 담은 후기 영상 보러가기

* QR코드는 스마트폰 포털 앱의 코드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정기회의 진행

미얀마 사업장에서는 1년에 두 번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부모 회의는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좋은 소통 창구이자, 학부모들이 아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동의 교육이나 생활하는 환경에 대해 잘 몰랐던 학부모들은 학부모 회의 이후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 학부모 회의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악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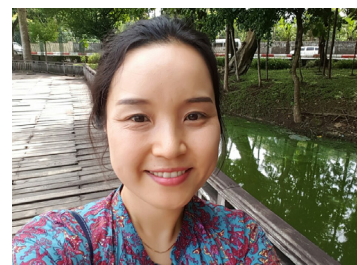
미얀마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체능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얀마 사업장에서는 'We need you(우리는 네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수업을 낯설어했던 아동들은 어느새 음악경연대회까지 참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지역단위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불렀고 초청된 부모님들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동들은 무대 위 설렘과 떨림의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 수업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은 미얀마의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미얀마 사업장에서는 아동들이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술, 음악, 컴퓨터, 영어 등 흥미로운 수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바쁜 학부모들이 아동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 수업 후 맛있는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특별 수업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아동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찬 방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편지



미얀마 아동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결연운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 이사장입니다. 미얀마의 아동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라고 물으면 선생님, 의사라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들이 보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얀마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통해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름처럼 아동들이 미래의 별(퓨처 스타스)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퓨처 스타스 이선영 이사장 드림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생일파티

매월 생일인 아동들을 위해 파티를 진행할 예정



의사 진료

신체발달 사항 및 질병 여부를 진료할 예정



체육대회

소속감 및 단결력 증진을 위한 체육대회를 1월에 진행할 예정



환경보호 활동

환경보호의 날(6월 5일)에 지역 사회 내 나무 심는 활동을 할 예정